

평생 추구했던 생명·평화 정신 오롯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월1일까지 열리는 '우호 김영중-평화행진곡' 전시장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조각가 故 김영중-평화행진곡'展 가보니

장성 출신... 한국조형예술 거장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광주비엔날레 '무지개 다리' 제작

작품세계 4가지 주제별 전시

5월1일까지 작품 70여점 선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불굴의 한국인상'이 눈에 띈다. 전국 8도를 표현한 성인 8인이 희망을 의인화한 어린이를 안고 있는 이 조각품은 '겨레의 탑'과 함께 독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압도적인 크기(높이 15m)와 금세라도 뒤흔칠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인해 보는 이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다.

지난 1986년 설치된 이 역사적 작품은 장성 출신 고(故)김영중(1926~2005) 조각가가 제작했다.

해방 이후 한국 조각예술을 대표한 그는 광주비엔날레 장설 주역이기도 하다. 광주 첫 관문인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입구에 조성된 '무지개 다리-경계를 넘어'도 김 작가가 설계한 조형물이다.

김영중의 작품세계와 그가 한국 미술사에 끼친 영향·의의를 조명하는 '우호(又湖) 김영중-평화행진곡'전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월1일까지 열린다.

작품 약 70점과 설계도 등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김영중 작고 후 열린 첫 유작전이다.

전시실을 방문하면 높이 2m 막대 모양 작품(작품명 미상·1985)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추상적 요소가 강한 이 작품은 김 작가가 추구했던 이상향을 보여준다. 마치 연기가 땅에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형상이다.

전시장은 크게 네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구상 인체조각', '융접조각과 생명', '가족과 공동체', '비상' 등이다. 초창기 작품이 주로 전시된 '구상 인체조각'에서는 전시주제이기도 한 '평화행진곡'을 볼 수 있다. 나팔을 부는 여인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조각이 주는 딱딱함 보다는 부드러운 조형미가 돋보인다.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학부에 입학한 김영중은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홍익대학교에 편입해 김환기(회화), 윤효중(조각)에게 사사했다.

전시를 담당하는 광주시립미술관 홍윤리 학예사는 "김영중은 이때 좋은 선생님들에게 대상 등 미술 기초를 충실히 배운 까닭에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청동을 부식시켜 청색을 강조시킨 기법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김영중은 서울대·홍익대 출신 젊은 조각가와 '원형회'를 만들어 새로운 조형 표현방식에 앞장섰다.

'융접조각과 생명' 주제에 전시된 '기계주의와 인도주의'(1962)는 원형회 정신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녹이 슬어 보이는 표면에는 융접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전쟁에 대한 폐해를 의미한다. 김작가는 사막에 보이는 작품을 새색과 씨



'평화행진곡'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사진 작품

앗 모양 조각으로 뒤덮이며 희망 메시지를 담았다.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김영중이 작품세계가 '가족과 공동체'로 넘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따라 일렬로 나열한 높이 약 50cm 조각품들은 모자(母子) 또는 가족들은 입체적으로 단순화 시켰다. 또 어느 조각가들과는 다르게 청동, 대리석, 나무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영중 예술세계 중차점은 '비상'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 희망을 가지기를 꿈꿨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불굴의 조각상' 석고작품(높이 1m)과 광주 문예회관에 설치된 '예술+행위+도약' 석고작품 등은 그의 염원이 담겨있다.

전시장을 나온 후 꼭 들려야 될 곳이 있다. 전시장 입구 맞은편 네모가 그려진 유리창이다. 각도를 잘 맞춰서 밖을 보면 네모 안에 김영중이 어린이대공원 곳곳에 남긴 작품(문·경계를 넘어·김인후 청동상)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한눈에 들어온다.

한편, 김영중은 '한국미술진흥법'(현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법 등 여러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조각공원인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1982)'과 '제주조각공원(1986)'을 개원하는 데 공헌했으며, 사재로 '연희조형관(1986)'을 건립해 후학 육성에 힘썼다. 전시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무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임준규 개인전

11일~23일

임준규 작가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존재의 시선'을 주제로 11일부터 23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에서 얻은 소재 '솔잎'을 이용한 페인팅 기법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시골에서 작업을 해왔다. 도시생활을 이질적으로 느꼈던 그는 시골풍경을 소재로 작업하며 도시살로부터 일탈을 경험했다.

'사과隣', '모범시민' 등 작품은 작가

가 경험했던 새로운 풍경들을 그렸다. 특히 과거에는 황무지 속에 홀로 서있는 '개인' 존재를 부각시켰다면 최근작들은 솔잎을 소재로 '나'를 표현한다.

임씨는 "우연히 마주친 마른 솔잎 표면에 보이는 줄기로부터 내 존재를 발견했다. 솔잎은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결과물이다"고 작업을 설명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임씨는 지난해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되며 이번 전시 기회를 얻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봄을 그리는 마음'...우리가 꼭 부르기

11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따스한 솔바람이 산등성을 넘고 맑은 봄빛이 들녘을 휘돌아 이 마음속에 꽃봉오리로 피어나네 기다려지는 그대의 소식 떨기만 하네...'

고진숙의 시 '봄을 그리는 마음'은 봄을 맞는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시에 작곡가 강창식씨가 곡을 붙인 동명의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 우리가꼭부르기(희망 황선욱) 3월 행사가 '봄을 그리는 마음'을 주제로 11일 오후 7시30분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광주시 북구 임동)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프라노 장마리아 씨가 '무곡'과 '꽃구름 속의'를 선사한다. 또 박진영, 이대형, 김중래, 이상현,



장마리아

유덕희, 김우진, 정다운, 최원익, '해당화', '섬진강', '내 마음', '강 건너 봄이 오듯' 등을 부른다. 꿈나무 연주에는 정가현(문우초 5년) 학생이 '아침

의 노래'를 들려주며 '반달', '봄이 오면', '봄치녀', '사공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i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예술가·신규 단체 육성에 중점

전남문화예술재단 올 236개 단체 20억원 지원

올해 전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 육성 확대 및 신규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강화했다.

8일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2016년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해 올해 236개 단체(개인포함)에 20억6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예술가 육성을 강화했다. 청년예술가육성사업 지원규모를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청년작가 선정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대폭 늘렸다. 선정된 청년작가들은 창작활동

비를 비롯해 멘토 컨설팅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81개 단체를 비롯해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선정 단체 워크숍을 오는 15~17일 전남도립도서관과 재단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지역협력형사업(2014년 지역특성화사업 통합분야)에서 가장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BS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는 메시지 2016

레터스투갓

letters to God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천국으로 보낸 편지가 당신에게도 배달됩니다! 전체관람가

단체할인 문의 광주CBS 062-376-8507 전남CBS 061-901-1000

절찬 상영중

광주 롯데시네마 (광주점, 수완점)
순천 신대메가박스, 여수 메가박스